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7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23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과장 단희수(044-203-4330), 이영열 사무관(4335)
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 박신철(044-200-5510), 윤종국 사무관(5523)

노후어선 현대화, 중소 조선소 살리기 산업부-해수부 손 맞잡아

- 산업부는 복지형 신모델 멸치잡이 어선 개발건조, 해수부는 시험조업과 대체건조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와 해양수산부(장관 유기준)는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와 중소 조선소 살리기의 일환으로,

○ 멸치잡이 업종인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해 어업경비 절감, 어선원 복지·안전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모델의 표준어선을 개발하고, 어업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이번 달부터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기선권현망 본선에 대해 표준선형 어선(시제선)의 설계·건조를 위한 연구개발(R&D) 사업을 착수하고,

○ 해양수산부는 표준선형 어선 건조 후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시험조업을 통해 성능검증을 실시하고, 내년 하반기부터 노후어선을 표준선형 어선으로 전환하는 대체건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
< 산업부-해수부 간 어선 현대화 협업 추진 과정 >

표준선형 기준제시	▶	표준선형 개발·설계	▶	시제선 건조	▶	시험조업 (성능검증)	▶	노후어선 대체건조
해수부		산업부		산업부		해수부		해수부

□ 기선권현망어업은 연간 14만 톤(국내 멸치 전체 어획량의 55% 수준)의 멸치를 생산·공급하는 업종으로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지만,

○ 총 5척(본선 2척, 어탐선 1척, 가공·운반선 2척)의 어선이 한 개 선단을 구성해 조업함에 따라 어업경비가 많이 들고, 21년 이상 어선이 383척(총 76개 선단) 중 66%인 253척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.

○ 또한, 선원실, 식당, 주방 등 후생시설이 비좁고 채광과 환기가 부족해 악취에 노출되어 있는 등 어선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공간도 턱 없이 열악한 실정이다.

□ 이번 산업부의 지원으로 설계·건조되는 표준선형 어선은 기존의 5척 선단을 4척 선단으로 축소하여 감척 효과는 물론, 어선원 후생시설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형 어선으로서,

○ 해수부는 추후 어업현장에서 실용화되면 선단 당 어업비용이 13% 절감되고, 어선원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.

□ 한편, 산업부 단희수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"국내 중소조선소의 경우, 수주량 부족에 따른 고사(枯死) 위기 상황으로 어선 현대화 추진을 통한 신조 물량 창출이 절실하다."라고 강조하고,

○ "앞으로, 해수부가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, 표준선형 개발 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의 모범사례를 구축할 계획이다."라고 말했다.

[별첨1] 기선권현망 실증사업(표준선형, 시제선, 시험조업) 추진계획
[별첨2] 기선권현망 어업 개요
[별첨3] 기선권현망 선진 조업 시스템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영열 사무관(044-203-4335),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윤종국 사무관(044-200-55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기선권현망 실증사업(표준선형, 시제선, 시험조업) 추진계획

□ **[추진 개요] 산업부의 R&D 예산(출연금)**을 활용, **표준선형 개발** 및 **시제선 설계·건조** 추진하는 방안 추진

○ **(표준선형 모델)** (현행) 5척 선단(본선 2, 어탐선 1, 가공·운반선 2) → (개선) **4척 선단**(본선 2, 가공·운반선 2)

* 본선을 증톤(25→35톤)하여 **복지공간**과 어탐기능을 설치하고, **어탐선 1척은 감척**

○ **(실증사업 일정)** 표준선형 개발('14.10~'15.6) → **시제선(본선 2척) 설계·건조**('15.7~'16.6) → **시험조업**('16.7~9) → **대체건조 지원**('16.10~)

○ **(비용 분담) 시제선 본선 2척을 건조**하되, **2척 건조비용(총 24~30억원)은 산업부와 권현망조합이 50 : 50으로 분담** (R&D 주관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)

◆ **(기대효과)** 어탐선 운영비 절감 등으로 선단 당 어업경비 연간 약 3.7억원* 절감 예상('15, KMI)

* 5년간 연 평균 어업비용(29.5억원)의 12.5% 수준

☞ 가공·운반선도 현대화하는 경우, 어획물 품질향상으로 어획물 단가 5% 상승(연간 약 2억원)

□ **[시험조업 방안]** 해양수산부 총괄·기획하에 **기선권현망조합이 시험조업 주관**하고, 연구원 승선하에 조업수행하여 조업결과 보고

○ **(시제선 처리)** 실증사업 완료 후, 입찰 등을 통해 **어업인에게 매각**하되, 시험조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순위 부여

* 시제선 매각자금(정부 부담분)은 기술료로 국고 납입 및 타 업종의 표준선형 개발 등 실증사업 재원으로 적립, 재투자 검토

□ **[실증사업 평가 완료 후 조치]**

○ **(표준선형 등록)** 시험조업을 통해 검증된 **시제선을 표준선형 어선으로 등록·고시**(어선법 제33조)하고,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 시 준거모델로 설정

○ **(제도개선)** 시험조업을 통한 시제선의 어획강도, 에너지 소비량 등 종합평가를 토대로 **수산관계 법령상의 톤수·마력 제한 규정 등 정비**

참고2 기선권현망 어업 개요

□ **조업방법**

○ 어선 2척이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멸치를 끌어 잡는 끌그물어업

□ **어업명칭의 유래**

○ 권현(權現)은 일본에서 풍어, 어업 및 안전 항해 등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콘피라공겡(金毘羅權現)의 뒷부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

* 1884년 히로시마현 어부가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성공 후 일본 어선들이 진출,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63년 수산업법 개정 시 '기선(機船 : 동력선)권현망어업' 명칭으로 정착

□ **업계 현황**

○ 선단구성 / 선원 수 : 5척 선단(본선2, 어탐선1, 가공운반선2) / 선단 당 평균 38명

○ 평균 선단 총톤수 : 총 275~385톤(본선25~30, 어탐선25, 가공운반선100~15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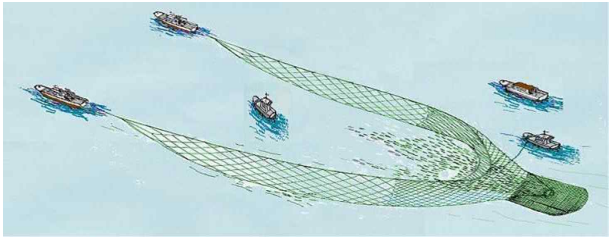
○ 어선척수 : 76개 선단, 총 383척(선령 21년 이상 척수는 253척)

○ 5년 평균 생산액(생산금액) : 14만톤(2,043억원)

○ 주 포획어종 : 멸치(국내 전체 어획량(24만톤)의 55% 공급)

○ 주 조업시기 : 7~1월(8~11월)

□ **조업 모식도**



참고3 **기선권현망 선진 조업 시스템**

□ 기선권현망 표준선형 모델

(단위 : 명)

	기존 선단(5척)			현대화 선단					
				4척			3척		
선 종	척 수	규모(톤)	선원수	척 수	규모(톤)	선원수	척 수	규모(톤)	선원수
어탐선	1	20~25	3~4	-	-	-	-	-	-
본선(주선)	1	25~35	7~8	1	35	8~9	1	25~35	8~9
본선(종선)	1	25~35	7~8	1	35	7~8	1	25~35	7~8
기공운반선	2	80~150	10~15	2	80~150	10~15	1	200이상	15-20
총 계	**5**	**230~395**	**37~50**	**4**	**230~370**	**35~47**	**3**	**250~270**	**30~37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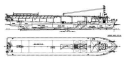
□ 시제선 제작 모델(4척 선단 조업 시스템)



어탐선 겸 망선(1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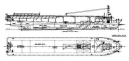


망선(1척)



가공선 겸 운반선(1척)

(어획물적재) ⇧⇩ (어획물운반)



가공선 겸 운반선(1척)